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목 차〉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론

우리나라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경제개발과 산업화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구조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물질만능주의와 소비·향락 풍조가 만연되었다. 여기에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또한 범람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환경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많은 시간을 학교주변에서 보낸다는 점과 성장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성격형성과 심신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박순희, 1993; 이에령, 1999; 신성길, 2000).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의 학교 주변은 불행하게도 교육을 저해하는 환경 요인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학교주변 환경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를 무분별하게 난립,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정책적 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묵인되고 있으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률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용재, 1999; 교육부, 2000)

문제는 이러한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주위환경에 민감하고 유혹에 약한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유해업소에의 출입경험은 도덕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반규범적 가치나 태도, 나아가서 비행충동 및 비행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높다(김문조, 1992; 이성식, 1994; 이강효, 2000). 이러한 유해업소는 술이나 담배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약물을 남용하는 장소로도 이용됨에 따라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유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용재, 1999; 정주환, 1999).

환경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깊게 관여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Bloom, 1964). 따라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환경을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바람직한 교육적 환경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 비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르렀다.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차원을 넘어 가정, 학교 및 사회의 병리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 정도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유해업소 산포 현황(한기경, 1995; 이성조, 1998; 양윤선, 1999)과 학생들의 유해업소 및 시설 이용 실태(권병진, 1994; 전영임, 1996; 장래혁, 1997), 유해업소 실태와 비행에 관한 연구(박순희, 1993; 전영일, 1995) 등이 대부분이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과 환경과 인간행

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장이론(Field Theory)을 적용하여 학교 주변 환경의 실태 파악과 함께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보호 차원의 현실적 접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본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석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즉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경요소들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유해업소 및 시설을 다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교육부, 2000)에 제시된 유해환경으로 그 의미를 제한한다.

2)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 이용정도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모형은 청소년 유해환경 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으로 Rosenstock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건강증진모델인 Health Belief Model(이하 HBM)을 근간으로 한다.

HBM은 인간의 건강행동을 설명하고 예측

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적 개념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건강신념모델의 주요개념은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혜택, 인지된 장애, 행위를 위한 중재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차적인 설명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요인, 인지된 감수성 요인, 인지된 심각성 요인, 인지된 장애요인으로 재구성하고, 종속변수로는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유해업소 및 시설의 이용 유무 지표를 채택한다.

2차적으로는 유해환경 이용 정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는 Kurt Lewin(1951)의 장이론(Field Theory)을 적용한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지각된 장(場)과의 함수관계($B = f(P \cdot E)$)이므로 개인의 특정한 환경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R.G.Barker는 행동을 일으키는 장, 즉 행동주변장(behavior setting)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시설의 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좋은 행태(behavior)를 기대한다면 좋은 장(field)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의 유해환경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이란 유해환경의 이용 가능성을 인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매우 다르며, 인지한 정도에 따라 유해환경을 이용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포가 학생들의 이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와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포에 관한 인지도, 학교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 인지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은 유해환경

이용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유해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인지된 장애는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률을 낮추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뜻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친구나 선배의 권유,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유해환경 이용 정도는 최근 1년간의 유해시설 및 업소 이용 유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지위, 재산, 폭력, 성, 약물 비행으로 분류한 김문조·이성식(1994)의 기준을 토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를 주는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성관계, 무단결석, 가출, 야간배회, 절도, 폭력, 반항 및 거짓말, 지나친 낭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등의 경험물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의 12개 층(stratum)으로 지역별 층화(stratification)한 후 각층에서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s)인 구 또는 군을 두 지역씩 추출하여 24개 층으로 나누었다. 이 때 추출된 두 개의 구(군)에 소재하는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s)인 학교를 학교등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층을 나누어 24개 지역층에서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 학교

씩 48개 중·고등학교를 추출한 후 다시 그 학교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학급을 표본단위개체(sampling unit; 1개 반은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로 모든 구성원을 전수 조사하는 다단계 층화추출(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표1>.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3차례의 예비검사(pretest)를 실시한 후 2000년 6월 29일부터 2000년 7월 29일까지 4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208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94부를 제외시킨 학생 2,11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지역별 연구대상 분포도

구 분	명
서 울	196
부 산	183
대 구	194
울 산	181
인 천	176
광 주	196
대 전	188
경 기	85
강 원	56
충 청	139
전 라	195
경 상	156
제 주	178
계	2,114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될 조사표는 <표2>의 항목에 따라 설문지를 개발한 후 2-3차례의 예비검사(pretest)를 실시하여 조사도구 문항의 이해도 및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한 후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 유해환경 이용 정도, 비행 경험률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전부호화 및 편집, 부호화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SPSS프로그램을 사용, 전산 처리하였다.

첫째,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된 감

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 유해환경 이용률, 비행 경험률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률은 카이사승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률은 카이사승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유해환경 이용 행위의 관련 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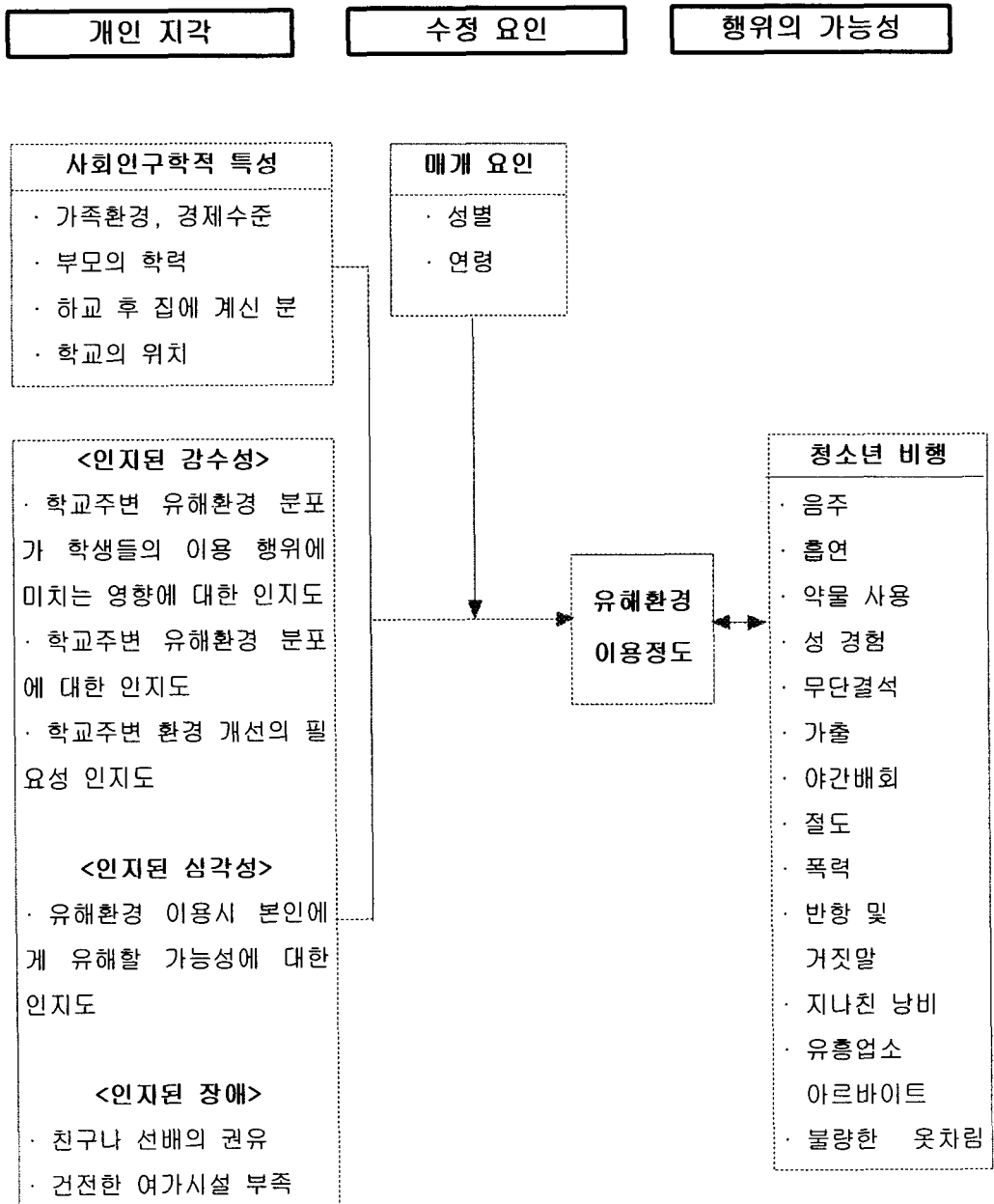
다섯째, 유해환경 이용 행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설문지 조사 항목

항 목	내 용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족 환경, 경제수준, 학교 후 집에 오면 계신 분, 학교의 위치	10
인지된 감수성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포가 학생들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포에 대한 인지도, 학교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 인지도	3
인지된 심각성	유해환경 이용시 본인에게 유해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26
인지된 장애	유해환경 이용에 대한 친구나 선배들의 권유, 부모나 교사의 무관심, 건전한 여가 시설 부족에 대한 인지도	3
유해환경 이용정도	유해환경별 이용 경험 유무	26
비행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성관계, 폭력, 절도 경험	13

3. 이론적 연구의 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HBM(Health Belief Model)에 기초한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별로 보면 중학생이 48.5%, 고등학생이 51.5%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전체의 39.2%, 여학생은 59.6%로 여학생이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환경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였고, 생활정도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을 때 '중'이 전체의 61.9%, '상'이 18.5%, '하'가 14.9%의 순이었다. 부모

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은 26.1%이었다.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52.9%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가 28.3%이었다. 학교 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만 계신다'는 학생이 4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아무도 없다'는 학생이 30.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학교의 위치는 주택가, 공원 주변이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논밭 주변 19.8%, 유흥가, 상가 주변 10.5%의 순이었다<표3>.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성			
남	405 (39.5)	424 (39.0)	829 (39.2)
여	598 (58.3)	661 (60.8)	1,259 (59.6)
무응답	23 (2.2)	3 (0.2)	26 (1.2)
가족 환경			
부모 모두	917 (89.0)	977 (89.4)	1,894 (89.2)
편부/편모	54 (5.3)	52 (4.8)	106 (5.0)
형제/친척	12 (1.2)	13 (1.2)	25 (1.2)
기타	11 (1.1)	30 (2.8)	41 (1.9)
무응답	32 (3.0)	16 (1.4)	48 (2.3)
생활 정도			
상	251 (24.5)	139 (12.8)	390 (18.5)
중	583 (56.8)	725 (66.6)	1,308 (61.9)
하	118 (11.5)	198 (18.2)	316 (14.9)
무응답	74 (7.2)	26 (2.4)	100 (4.7)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167 (16.3)	199 (18.3)	366 (17.3)
고졸	532 (51.9)	548 (50.4)	1,080 (51.1)
대졸이상	255 (24.8)	297 (27.3)	552 (26.1)
무응답	72 (7.0)	44 (4.0)	116 (5.5)

〈표 4〉 인지된 감수성 요인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269 (26.2)	328 (29.9)	597 (28.3)
고졸	535 (52.1)	584 (53.7)	1,119 (52.9)
대졸이상	137 (13.3)	141 (13.0)	278 (13.1)
무응답	85 (8.4)	35 (3.4)	120 (5.7)
학교 후 집에 계신분			
할머니/할아버지	100 (9.7)	98 (9.0)	198 (9.4)
부모님 모두	91 (8.9)	154 (14.2)	245 (11.6)
아버지/어머니	471 (45.9)	480 (44.1)	951 (45.0)
기타	6 (0.6)	9 (0.8)	15 (0.7)
아무도 없음	315 (30.7)	333 (30.6)	648 (30.7)
무응답	43 (4.2)	14 (1.3)	57 (2.6)
학교의 위치			
유흥가, 상가 주변	106 (10.4)	116 (10.6)	222 (10.5)
주택가,공원 주변	563 (54.8)	650 (59.7)	1,213 (57.4)
공장 주변	27 (2.6)	49 (4.5)	76 (3.6)
논밭 주변	206 (20.1)	212 (19.5)	418 (19.8)
무응답	124 (12.1)	61 (5.6)	185 (8.7)
총 계	1,026 (100.0)	1,088 (100.0)	2,114 (100.0)

2. 개인지각 요인

1) 인지된 감수성

본 연구에서는 유해환경 이용에 대한 개인의 인지된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3가지로 구성하여 유해환경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5.4%, ‘보통이다’가 60.1%,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5%로 나타나 학교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우리학교주변은 유해업소나 시설이 많은 편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7%, ‘보통이다’ 64.7%, ‘전혀 그렇지 않다’ 30.6%인 것으로 나타나, 유해환경 분포율이 ‘보통 이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우리학교의 주변환경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17.7%, ‘보통이다’가 67.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7%로, 유해환경 분포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학교주변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았다<표4>.

<표 4> 인지된 감수성 요인

구 분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	명 (%)	명 (%)	명 (%)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528 (25.4)	1,247 (60.1)	300 (14.5)	2,075 (100.0)
우리학교주변은 유해업소나 시설이 많은 편이다	98 (4.7)	1,337 (64.7)	632 (30.6)	2,067 (100.0)
우리학교의 주변환경은 개선이 필요하다	366 (17.7)	1,398 (67.6)	304 (14.7)	2,068 (100.0)

주) 무응답 제외

<표 5> 인지된 심각성 요인

단위 : 명(%)

구 분	해로울것이다	보통이다	해롭지않을것이다	평 균
	명 (%)	명 (%)	명 (%)	
사창가	996 (85.3)	93 (8.0)	78 (6.7)	2.79
성기구취급업소	914 (78.3)	150 (12.8)	104 (8.9)	2.69
음란물노점상	881 (75.6)	192 (16.5)	93 (8.0)	2.68
퇴폐목욕장	855 (73.6)	176 (15.1)	131 (11.3)	2.62
퇴폐이발소	839 (72.0)	188 (16.1)	139 (11.9)	2.60
단란주점	744 (63.7)	291 (24.9)	133 (11.4)	2.52
안마시술소	719 (61.7)	209 (17.9)	238 (20.4)	2.41
티켓다방	619 (53.1)	331 (28.4)	215 (18.5)	2.35
무도장	599 (51.5)	265 (22.8)	299 (25.7)	2.26
술판매음식점	537 (46.1)	303 (26.0)	325 (27.9)	2.18
호프집 및 소주방	508 (43.5)	368 (31.5)	293 (25.0)	2.18
경마장	557 (47.9)	238 (20.4)	369 (31.7)	2.16
전화방	465 (39.9)	339 (29.1)	362 (31.0)	2.09
성인오락실	405 (34.9)	406 (35.0)	350 (30.1)	2.05
숙박시설	432 (37.3)	296 (25.5)	432 (37.2)	2.00
나이트클럽	105 (26.7)	372 (32.0)	481 (41.4)	1.85
비디오방	42 (3.6)	285 (24.4)	713 (61.0)	1.53
당구장	70 (6.0)	173 (14.8)	890 (76.2)	1.33
콜라텍	98 (10.0)	145 (11.4)	916 (78.6)	1.30
카페·커피점	63 (5.4)	88 (7.6)	973 (84.0)	1.25
만화방	44 (3.8)	119 (12.4)	975 (83.8)	1.22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	70 (6.1)	96 (8.2)	998 (85.7)	1.20
극장	105 (9.0)	50 (4.3)	10,49 (86.7)	1.15
노래방	169 (14.5)	37 (3.2)	10,82 (92.3)	1.11
PC방	64 (5.5)	44 (3.8)	10,78 (90.7)	1.11
전자오락실	35 (3.0)	44 (3.8)	10,85 (93.2)	1.10

주) 무응답제외

2)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심각성 요인은 연구대상자가 유해환경을 이용하였을 때 자신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수화시켜 살펴보았다.

이용시 가장 유해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소 및 시설은 사창가로 75.6%의 학생들이 '매우 해로울 것이다'고 응답하였으며(2.79점), 다음으로 성기구 취급업소(2.69점), 음란물노점상(2.68점), 퇴폐목욕장(2.62점)의 순이었다.

즉 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업소 및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전자오락실(1.10점), 노래방(1.11점), PC방(1.11점), 극장(1.15점)에 이용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표5>.

3) 인지된 장애

인지된 장애 요인은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률을 낮추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세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유해환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학생이 11.0%이었으며,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상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유해환경을 이용한다는 박순희(1993), 전영일(1995)의 연구에

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무관심이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생이 4.3%,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95.7%로 조사되었다.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을 느껴 유해환경을 이용한다는 학생이 전체의 35.4%로 나타나 청소년 발달시기에 부합되는 스포츠, 문화시설과 같은 건전한 여가시설은 좀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표6>.

3. 유해환경 이용 경험

연구대상자들은 유해환경 중 전자오락실(78.3%), PC방(75.6%), 노래방(71.6%), 만화방(34.3%)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인지되는 유해업소인 숙박시설, 티켓다방, 성인오락실, 호프집 및 소주방, 나이트클럽의 이용률이 각각 4.8%, 3.0%, 4.5%, 8.5%, 2.7%로 조사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업소를 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학교주변에는 학생들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표7>.

<표 6> 인지된 장애 요인

구 분	그 령 다		그 령 지 않 다		계	
	명	(%)	명	(%)	명	(%)
친구나 선배의 권유	219	(11.0)	1,768	(89.0)	1,987	(100.0)
교사나 부모의 무관심	85	(4.3)	1,902	(95.7)	1,987	(100.0)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	703	(35.4)	1,284	(64.6)	1,987	(100.0)

주) 무응답제의

〈표 7〉 유해환경 이용 경험

단위 : 명(%)

업 소	이용 경험				계	
	유		무			
전자오락실	1,620	(78.3)	449	(21.7)	2,069	(100.0)
PC방	1,568	(75.6)	505	(24.4)	2,073	(100.0)
노래방	1,480	(71.6)	588	(28.4)	2,068	(100.0)
극장	954	(46.2)	1,113	(53.8)	2,067	(100.0)
만화방	709	(34.3)	1,357	(65.7)	2,066	(100.0)
카페·커피점	504	(24.4)	1,564	(75.6)	2,068	(100.0)
당구장	488	(23.6)	1,581	(76.4)	2,069	(100.0)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	334	(16.7)	1,729	(83.3)	2,063	(100.0)
술판매음식점	267	(12.9)	1,801	(87.1)	2,068	(100.0)
비디오방	261	(12.7)	1,791	(87.3)	2,052	(100.0)
콜라텍	200	(9.7)	1,868	(90.3)	2,068	(100.0)
호프집 및 소주방	175	(8.5)	1,893	(91.5)	2,068	(100.0)
전화방	114	(7.1)	1,942	(92.9)	2,056	(100.0)
숙박시설	99	(4.8)	1,958	(95.2)	2,067	(100.0)
성인오락실	94	(4.5)	1,974	(95.5)	2,068	(100.0)
티켓다방	62	(3.0)	2,002	(97.0)	2,064	(100.0)
나이트클럽	55	(2.7)	2,011	(97.3)	2,066	(100.0)
단란주점	38	(1.8)	2,029	(98.2)	2,067	(100.0)
경마장	29	(1.4)	2,038	(98.6)	2,067	(100.0)
음란물노점상	27	(1.3)	2,040	(98.7)	2,067	(100.0)
퇴폐목욕장	20	(1.0)	2,047	(99.0)	2,067	(100.0)
사창가	19	(0.9)	2,047	(99.1)	2,066	(100.0)
퇴폐이발소	18	(0.9)	2,050	(99.1)	2,068	(100.0)
성기구취금업소	13	(0.6)	2,050	(99.4)	2,063	(100.0)
안마시술소	10	(0.5)	2,058	(99.5)	2,068	(100.0)
무도장	7	(0.3)	2,061	(99.7)	2,068	(100.0)

주) 무응답 제외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연구대상자의 유해환경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순이었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표8>.

학교의 위치는 유흥가, 상가 주변에 소재할 경우 가장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았고, 반면 학교의 위치가 주택가, 공원, 논밭 주변인 집단은 이용률이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즉 학교주변에 유해환경 분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사업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		x ²
	유		무				
성							
남	587	(75.7)	188	(24.3)	775	(100.0)	0.138
여	894	(76.5)	275	(23.5)	1169	(100.0)	
계	1,481	(76.2)	463	(23.8)	1,944	(100.0)	
연령							
중학생	702	(71.4)	281	(28.6)	983	(100.0)	23.666**
고등학생	794	(80.8)	189	(19.2)	983	(100.0)	
계	1,496	(76.1)	470	(23.9)	1,966	(100.0)	
가족환경							
부모 모두	1,349	(76.1)	424	(23.9)	1,773	(100.0)	1.277
편부/편모	71	(75.5)	21	(24.5)	94	(100.0)	
형제/친척	17	(73.9)	6	(26.1)	23	(100.0)	
기타	28	(75.7)	9	(24.3)	37	(100.0)	
계	1,465	(76.1)	460	(23.9)	1,927	(100.0)	
생활정도							
상	264	(72.1)	102	(27.9)	366	(100.0)	5.613
중	952	(77.4)	278	(22.6)	1,230	(100.0)	
하	225	(79.2)	59	(20.8)	284	(100.0)	
계	1,441	(76.6)	439	(23.4)	1,880	(100.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243	(71.3)	98	(28.7)	341	(100.0)	7.091*
고졸	793	(78.3)	220	(21.7)	1,013	(100.0)	
대졸이상	393	(77.1)	117	(22.9)	510	(100.0)	
계	1,429	(76.7)	435	(23.3)	1,864	(100.0)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405	(73.1)	149	(26.9)	554	(100.0)	5.674
고졸	817	(78.4)	225	(21.6)	1,042	(100.0)	
대졸이상	201	(76.7)	61	(23.3)	262	(100.0)	
계	1,423	(76.6)	435	(23.4)	1,858	(100.0)	
학교 후 집에 계신 분							
조부/조모	141	(75.0)	47	(25.0)	188	(100.0)	2.749
부모님 모두	166	(77.2)	49	(22.8)	215	(100.0)	
아버지/어머니	684	(76.1)	215	(23.9)	899	(100.0)	
기타	6	(75.0)	2	(25.0)	8	(100.0)	
아무도 없음	462	(76.1)	145	(23.9)	607	(100.0)	
계	1,459	(76.1)	458	(23.9)	1,917	(100.0)	
학교의 위치							
유흥가, 상가 주변	174	(84.5)	48	(15.5)	206	(100.0)	18.454**
공장 주변	61	(83.6)	3	(16.4)	64	(100.0)	
주택가,공원 주변	861	(76.3)	314	(23.7)	1,128	(100.0)	
논밭 주변	274	(70.1)	66	(29.9)	391	(100.0)	
계	1,370	(76.2)	431	(23.8)	1,798	(100.0)	

주) 무응답 제외 *p<0.05 **p<0.001

5. 개인지각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1) 인지된 감수성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개인지각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인지된 감수성 요인 중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 즉 감수성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유해환경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9>.

인지된 감수성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Becker(1974), Stillman(1977), 최영희(1980), 이가영(1995)의 연구에서 보고된 감수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취하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2) 인지된 심각성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개인지각 요인 중 인지된 심각성 요인은 유해환경을 이용한다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해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심각성 인지도가 높은 집단인 ‘매우 해로울

<표 9> 인지된 감수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	x ²
	유	무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매우그렇다	346 (23.4)	149 (32.0)	495 (25.4)	22.607*
보통이다	932 (59.8)	270 (57.9)	1,202 (61.7)	
그렇지않다	201 (16.8)	47 (10.1)	248 (12.9)	
계	1,479 (100.0)	466 (100.0)	1,945 (100.0)	
우리학교주변은 유해 업소나 시설이 많은 편이다				
매우그렇다	69 (4.7)	20 (4.3)	89 (4.6)	5.057
보통이다	980 (66.3)	282 (61.2)	1,262 (65.1)	
그렇지않다	428 (29.0)	159 (14.5)	587 (30.3)	
계	1,477 (100.0)	461 (100.0)	1,938 (100.0)	
우리학교의 주변환경은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266 (18.1)	82 (17.7)	348 (17.9)	0.039
보통이다	991 (67.1)	312 (67.2)	1,303 (67.2)	
그렇지않다	219 (14.8)	70 (15.1)	289 (14.9)	
계	1,476 (100.0)	464 (100.0)	1,940 (100.0)	

주) 무응답 제외 *p<0.001

<표 10> 인지된 심각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	x ²
	유	무		
유해환경 이용시				
유해성 인지도				
매우 해로울 것이다	932 (62.3)	369 (78.5)	1,301 (66.2)	49.342*
보통이다	555 (37.1)	94 (20.0)	649 (33.0)	
해롭지 않을 것이다	9 (0.6)	7 (1.5)	16 (0.8)	
계	1,496 (100.0)	470 (100.0)	1,966 (100.0)	

주) 무응답 제외

*p<0.001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즉 학생들은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할수록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유해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이종경(1984), 이원희(1984), 양승애(1997)의 연구에서 보고된 심각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표10>.

3) 인지된 장애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인지된 장애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장애 요인이 있을 때 유해환경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장애 요인과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표11>.

<표 11> 인지된 장애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	x ²
	유	무		
친구나 선배의 권유				
그렇다	155 (10.9)	50 (11.5)	205 (11.0)	0.104
그렇지않다	1,265 (89.1)	386 (88.5)	1,651 (89.0)	
계	1,420 (100.0)	436 (100.0)	1,856 (100.0)	
부모나 교사의 무관심				
그렇다	59 (4.2)	16 (3.7)	75 (4.0)	1.639
그렇지않다	1,361 (95.8)	420 (96.3)	1,781 (96.0)	
계	1,420 (100.0)	436 (100.0)	1,856 (100.0)	
여가시설의 부족				
그렇다	510 (35.9)	142 (32.6)	652 (35.1)	0.203
그렇지않다	910 (64.1)	294 (67.4)	1,204 (64.9)	
계	1,420 (100.0)	436 (100.0)	1,856 (100.0)	

주) 무응답 제외

6. 유해환경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유해환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χ^2 -test 결과 유의하게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2>는 대수선형모형의 회귀계수(β)를 계산한 결과로서 이 회귀계수에 역대수(antilog)를 취하면 회귀계수에 포함된 변수의 유무에 대한 유해환경 이용의 비차비를 뜻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유해환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으로,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유해환경 이용 경험의 비차비가 1.467로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학교의 위치는 유흥가, 상가 주변인 집단이 주택가, 공원 주변인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1.851배 높았다($p<0.01$).

인지된 감수성 요인 중 '학교주변 유해환경은 학생들의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 대해 '보통 이하'에 응답한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 경험이 1.563배 높았다($p<0.001$). 즉 감

<표 12> 유해환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β	Std. Error	EXP(B)
constant	0.378	0.122	1.459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중학생	0.383	0.117	1.467*
고등학생			
학교의 위치			
주택가, 공원 주변	0.616	0.177	1.851*
유흥가, 상가 주변			
인지된 감수성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0.447	0.125	1.563**
매우 그렇다			
보통 이하			
인지된 심각성			
유해환경 이용시 유해성 인지도	0.629	0.133	1.876**
매우 해로울 것이다			
보통 이하			

* $p<0.01$ ** $p<0.001$

수성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유해환경 이용 경험률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유해환경 이용 경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지된 심각성이었다. 이는 유해환경 이용시 본인에게 미칠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로서, 심각성 인지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1.876배 유해환경 이용 경험률이 많았다($p < 0.001$) <표12>.

7. 청소년 비행

비행 영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음주, 흡연, 약물, 성 경험, 무단결석, 가출, 야간배회, 절도, 폭력, 반항 및 거짓말, 지나친 낭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불량한 옷차림 및 화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은 21.6%이고, 흡연 경험률은 11.9%, 약물 사용 경험률은 4.3%, 성관계 경험은 1.6%로 나타났다. 또한

무단결석이 3.5%, 가출 2.6%, 야간배회 7.8%, 절도 1.1%, 폭력 2.8%, 반항 및 거짓말 10.7%, 지나친 낭비 14.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6%,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5.5%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13>.

8. 비행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대상자의 유해환경 이용 정도와 비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해환경 이용 경험을 종속변수로,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성관계, 무단결석, 가출, 야간배회, 절도, 폭력, 반항 및 거짓말, 지나친 낭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두어 χ^2 -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 경험률이 많았고,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 경험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표 13> 비행

비행	명	(%)
음주	442	(21.6)
흡연	244	(11.9)
약물	91	(4.3)
성관계	32	(1.6)
무단결석	40	(3.5)
가출	30	(2.6)
야간배회	90	(7.8)
절도	13	(1.1)
폭력	32	(2.8)
반항 및 거짓말	124	(10.7)
지나친 낭비	169	(14.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9	(1.6)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64	(5.5)

〈표 14〉 비행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행위

단위 :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	χ^2
	유	무		
음주 경험				
있다	360 (89.1)	44 (10.9)	404 (100.0)	47.509**
없다	1,097 (72.6)	413 (27.4)	1,510 (100.0)	
계	1,457 (76.1)	457 (23.9)	1,914 (100.0)	
흡연 경험				
있다	192 (85.7)	32 (14.3)	224 (100.0)	12.780**
없다	1,267 (74.9)	425 (25.1)	1,692 (100.0)	
계	1,459 (76.1)	457 (23.9)	1,916 (100.0)	
성 경험				
있다	23 (95.8)	1 (4.2)	24 (100.0)	5.185*
없다	1,436 (75.9)	456 (24.1)	1,892 (100.0)	
계	1,459 (76.1)	470 (23.9)	1,916 (100.0)	
최근1년간 음주 빈도				
없다	1,068 (73.3)	389 (26.7)	1,457 (100.0)	43.710**
아주 가끔	70 (73.3)	26 (26.7)	96 (100.0)	
한달 1-2회	226 (91.9)	20 (8.1)	246 (100.0)	
한달 3회 이상	53 (85.5)	9 (14.5)	62 (100.0)	
계	1,417 (76.1)	444 (23.9)	1,861 (100.0)	
최근1년간 흡연량				
없다	1,297 (75.0)	432 (25.0)	1,729 (100.0)	19.333**
아주 가끔	64 (90.1)	7 (9.9)	71 (100.0)	
1일 1-5개피	29 (90.6)	3 (9.4)	32 (100.0)	
1일 6-20개피	34 (94.4)	2 (5.6)	36 (100.0)	
1일 20개피 이상	2 (100.0)	0 (0.0)	2 (100.0)	
계	1,426 (76.3)	444 (23.7)	1,870 (100.0)	
반항 및 거짓말 경험				
있다	104 (90.4)	11 (9.6)	115 (100.0)	8.906**
없다	743 (78.6)	202 (21.4)	945 (100.0)	
계	847 (79.9)	213 (20.1)	1,060 (100.0)	
지나친 낭비 경험				
있다	139 (89.1)	17 (10.9)	156 (100.0)	9.670**
없다	707 (78.3)	196 (21.7)	903 (100.0)	
계	846 (79.9)	213 (20.1)	1,059 (100.0)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경험				
있다	54 (93.1)	4 (6.9)	58 (100.0)	6.656*
없다	793 (79.1)	209 (20.9)	1,002 (100.0)	
계	847 (79.9)	213 (20.1)	1,060 (100.0)	

주) 무응답제외

*p<0.05 **p<0.01

성 경험 역시 경험 있는 집단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반항 및 거짓말, 지나친 낭비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또한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경험이 있는 집단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이는 유해환경 접촉이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약물 사용, 폭력, 절도, 성관계 등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인순(1989), 박순희(1993), 전영일(1995), 양운선(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해환경 이용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이용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교육환경 보호 차원의 접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전국의 중·고등학생 2,114명을 다단계 층화추출하여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유해환경 이용률은 전자오락실이 78.3%로 가장 높았고, PC방(75.6%), 노래방(71.6%), 만화방(34.3%)의 순이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고($p < 0.001$),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p < 0.05$) 이용률이 높았다

($p < 0.05$).

또한 학교의 위치가 유흥가, 상가 주변일 경우 유해환경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p < 0.001$),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3. 인지된 감수성 요인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유해환경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p < 0.001$), 감수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유해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된 심각성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률을 살펴보면, 유해환경을 이용하면 본인에게 '매우 해로울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p < 0.001$), 심각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유해환경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된 장애 요인에 따른 유해환경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요인은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과 관련성이 없었다.

4. 유해환경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해환경 이용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개인지각 요인 중 심각성 인지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학교의 위치, 감수성 인지도, 연령의 순이었다.

5. 연구대상자의 비행은 음주 경험률이 21.6%, 흡연 경험률이 11.9%, 약물 사용 경험률이 4.3%, 성 경험률이 1.6%로 나타났다. 기타 문제 행동으로 지나친 낭비가 14.6%로 가장 많았고, 반항 및 거짓말 10.7%, 야간배회

7.8%,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5.5%의 순이었다.

6. 유해환경 이용 행위에 따른 비행을 살펴보면,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p < 0.001$),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p < 0.001$), 성 경험이 있는 집단($p < 0.05$), 지나친 낭비 경험이 있는 집단($p < 0.001$), 반항 및 거짓말 경험이 있는 집단($p < 0.001$),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 경험이 있는 집단($p < 0.05$)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분포도에 따른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건강신념모델과 장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에 유해환경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와 비행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교육환경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학교주변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건강위험행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정화사업과 함께 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및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보건교육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1. 교육부 : 교육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1998
2. 김문조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1992
3. 도중수 외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pp85-96, 1991
4. 박순희 ;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5. 신성길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양승애 : 중년기 여성의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실행정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7. 양윤선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이가영 : 우리나라 일부 성인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건강신념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9. 이강효 : 청소년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 이성식, 김문조 :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제27호, 1994
11. 이성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이해령 : 비행청소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9
13. 이웅재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4. 이종경 :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의 예측인자 발견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5. 장래혁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6. 정주환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7. 전영일 : 일부도시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주변유해업소 출입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8. 최영희 : 고혈압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0권 pp73-83, 1980
 19. 한기경(1995),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유해환경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Becker, M. H.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 2(4), pp 409-419. 1974
 21. Bertrand L. D., Abernathy T. J. : Prediction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Us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pproaches, Journal of School Health, 63(2), pp 98-103, 1993
 22. Blanken AJ : Measuring use of alcohol and other drugs among adolescents, Public Health Reports ;108(supp) ; pp 25-29, 1993
 23. Kann Laura, Warren W.,Collins J.T. : Results from the National School - Based 1991 Youth Risk Behavior Survey and Progress Toward Achieving Related Health Objectives for the Nation, Journal of the U.S.Public Health Service, Public Health Reports, 108(1), 1993
 24. Kasl SV : The health belief model and behavior related to chronic illness, Health Educ Monog, 2(4), pp 420-432, 1974
 25. Kurt Lewin : Field theory for social science, 1951
 26. Mainman, L. A., & Becker, M. H. : The health belief model : Origins and correlates in psychological theory.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pp328-335, 1974
 27. Pat O'Malley : Crime and the risk society, Aldershot, [England] ; Brookfield, VT,Ashgate, 1998
 28. Rosenstock, I. M. :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pp 354-386, 1959
 29. Rosenstock, I. M., & Kirscht, J. P. : Practice implications. Health Education 2(4), pp 470-479. 1974
 30. Stillman MJ, : Woman's Health Beliefs about breast and breast self-examination, Nursing Research 26(2), pp 121-127, 1977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Misconducts and Harmful Environment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Myung-Sun Le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placed its objectives in suggesting the basic data for setting up an approach to protec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misconducts of adolescence and the harmful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s an object of stud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all over the country. Thus, this study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survey, by the multi-stage of stratified sampling in 2,114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June 29, 2000 through July 29, 2000. And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1. In case of the ratio of students using harmful environment, the electronic game room had the highest ratio (78.3%); next, the PC room (75.6%), the singing room (71.6%), and the cartoon room (34.3%).

2. In terms of the experiences of using the harmfu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high school students used it in a higher ratio, compar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p < 0.001$); the students, whose father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comparatively used it much more ($p < 0.05$). Also, when a school is located near to amusement quarters or shopping centers, students used the harmful environment most highly ($p < 0.001$). And the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In case of the perceived susceptibility factors, the harmful environment was found to be used in lower ratio, by the students who answered "very so" to the question item, The more harmful environment facilities are positioned around school, the more student have the opportunities to use them. ($p < 0.001$). That 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higher students' degree of perceived susceptibility factors was the less students used harmful environment facilities.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atio of using harmful environment according to perceived seriousness factors, it was founded out that the

students, who answered, "If I use any harmful environment facilities, it will be very harmful to myself." had the less opportunities of having used them, compared with the students who did not answer so ($p < 0.001$). Thi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degrees perceived seriousness of students, the less they used harmful environment facilities.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ide of the ratio of using harmfu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erceived barrier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any special large differences. That is, perceived barriers had nothing to do with students' using harmful environment.

4. As the result of having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s of using harmful environment, the factor to explain the behaviors of using harmful environment was found to be the degree of perceived seriousness, among individual perceiving factors; next, the location of a school - on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degree of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ages, in sequence.

5. Among students' misconduct experiences, drinking was highest (21.6%), next, smoking (11.9%), drug abuse (4.3%), and sexual relations (1.6%), in sequence. Among other problematic behaviors, excessive waste was highest (14.6%); next, disobedience and lie (10.7%), night wandering (7.8%), and bad dressing and making-up (5.5%), in sequence.

6. In terms of the misconducts according to the behaviors of using harmful environment, compared with the students who did not commit any misconducts, harmful environment facilities were used more highly, by each group of students who experienced drinking ($p < 0.001$), smoking ($p < 0.001$), sexual relations ($p < 0.05$), excessive waste ($p < 0.001$), disobedience & lie ($p < 0.001$), and bad dressing & making-up ($p < 0.05$).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 Word : adolescent misconducts, harmful environment, Health Belief Model